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90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4.30~2026.05.06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8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2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예비후보, 아이들, 미래, 구조, 기반
경제·관광	항공, 콘텐츠, 상승, 관광객, 여행
지역·사회	어린이, 경기, 청년, 대응, 노동자

※ 분석 기간 : 26.04.30.~26.05.06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예비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영수 후보의 아라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 완공 및 인프라 확충 공약 - 한권 후보의 원도심 가족친화거리 조성 및 아동 복지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성범 후보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선 출마 및 제2공항 추진 찬성 입장
	아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후보의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제주 및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 김명호 후보의 아이튼튼보건소 신설을 통한 어린이 건강권 및 예방 인프라 강화 - 강성의 후보의 학교건강주치의 도입을 통한 아동기 건강 공공 책임 구조 마련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후보의 AI 대전환(AI)을 통한 제주 혁신경제 생태계 및 미래 엔진 가동 - 고익숙 후보의 초개별화 맞춤형 교육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 서귀포 보선 후보들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 경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성유 후보의 빛의 경제 벨트 조성을 통한 야간 관광 및 소비 구조 혁신 - 이남근 후보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AI 스마트 플랫폼 및 농업 소득 구조 개선 - 도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봉쇄 조항 유지에 따른 의회 정치 구조 변화 및 논란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 관광약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 기반 조성 추진 - 김덕홍 후보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수 인프라 및 지능형 물 관리 기반 확충 -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통한 역사 보존 및 평화 인권 교육 기반 마련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할증료 폭등과 공급 좌석 감소에 따른 관광 위기 - 제주항공의 차세대 항공기 도입 및 기단 현대화 추진 - 대한항공의 글로벌 서비스 인증 및 지역사회 상생 공헌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수출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실태와 실무 확장 과제 - 사계절 체류형 관광 브랜드 '카름스테이'의 집중 홍보 - 용담1동 '부러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여파에 따른 제주 지역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세 -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은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매출 급증 - 유가 폭등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의 폭발적 증가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시장 위축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투입 및 체류 지원 - 중국 거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 카지노 고객층의 세대교체와 개별 여행 중심의 이용 패턴 변화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야간 문화관광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굴림야행' - 지역화폐 경품을 연계한 '삼다수 제주여행 페스티벌' 추진 - 신규 대형 카페리 '퀸메리호' 취항에 따른 해상 여행 패러다임 변화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에스키즈존' 지원 사업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아동학대 의심 신고 급증 및 현장 대응 인력 부족 -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 풍성한 문화 행사 개최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SK FC, 부천전 승리로 연패 탈출 및 반전 계기 마련 - 제60회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 상하수도 시설 안전 점검 - 제주SK FC, 전북전 패배에 따른 득점력 부재 과제 노출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청년 구직자를 위한 '2026 금융권 취업 박람회' 개최 - 서귀포시 도서관, 청년 힐링 및 자아 성찰 프로그램 운영 - 한일 청년 세대, 제주 4·3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연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전 소방서 '24시간 현장 지휘 체계' 전면 확대 - 봄철 미세먼지 유발 환경 사범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 점검 - 6·3 지방 선거 후보자 대상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질의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세계 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및 노동 기본권 보장 촉구 - 지역 정치권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 발표 - 레미콘 운송 노동자 파업 및 운반비 인상 협상 난항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4월 30일~5월 6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43건임
 - 정치·행정 분야 449건, 경제·관광 119건, 지역·사회 275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예비후보, 아이들, 미래, 구조, 기반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예비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영수 후보의 아라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 완공 및 인프라 확충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라동의 급격한 인구 성장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명품 여가 공간 조성을 약속함. 교육부 사전심의를 통과하며 건립이 가시화된 만큼 사업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주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책임감과 추진 의지를 피력함. · 지난 2024년부터 제주도 및 제주대학교와 '3자 워킹그룹'을 주도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결과 행정적 관문을 통과함. 정치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
-------	------	--

정치·행정	예비후보	<p>명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여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쾌적하게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ی겠다고 강조함.</p> <p>- 한권 후보의 원도심 가족친화거리 조성 및 아동 복지 제도적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원도심 재건을 위해 '제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 탐라문화광장을 중심으로 가족친화거리를 조성하고 야외 도서관 축제 및 어린이 북 놀이터 등을 통해 원도심 내 부족한 아동 복지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함. · 원도심 위기 극복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상권이 참여하는 '수익 창출형 경제 모델'을 제안함. 크루즈 관광객 등을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가임 및 난임 지원 조례 개정을 포함하여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한권답게' 실천하여 행복이 더 큰 원도심을 완성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포부를 밝힘. <p>- 김성범 후보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선 출마 및 제2공항 추진 찬성 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 전문가로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32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 성과를 확실히 가져오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밝힘.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추진에 명확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도민 여론 수렴 등 절차적 신뢰를 핵심으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서귀포를 세계적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해양치유, 해양레저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와 AI 기술을 결합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약속함. 1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확충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서귀포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함.
	아이들	<p>- 위성곤 후보의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제주 및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제주'를 목표로 맞춤형 돌봄 모델인 '애기구덕' 도입과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 강화를 약속함. 날씨에 관계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유아 실내놀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독서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함. · 이웃 간 돌봄을 나누는 제주형 공동육아 모델인 '수눔음돌봄공동체'를 확대하고 마을 유희공간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확충,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아이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온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제주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함. <p>- 김명호 후보의 아이튼튼보건소 신설을 통한 어린이 건강권 및 예방 인프라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밀화된 제주시보건소의 기능을 분산하고 어린이 예방 및 검진을 담당하는 '아이튼튼보건소(어린이보건센터)' 신설 공약을 발표함. 현재 아이들이 예방접종과

정치·행정	아이들	<p>영유아 검진을 위해 긴 대기 시간을 견뎌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남동 인근 유희부지에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하며, 이는 단순한 불편 해소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적인 아동 건강 정책임을 강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소아 의료가 치료 중심에 치우쳐 예방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린이 전담 보건센터를 통해 대기 시간 단축과 감염 위험 감소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힘. 인구 밀집 지역의 전략적 인프라 강화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공 보건 환경을 조성하고, 진보당 특유의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도민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게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함. <p>- 강성의 후보의 학교건강주치의 도입을 통한 아동기 건강 공공 책임 구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청소년기의 건강 관리를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학교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을 발표함.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단절 없는 건강 관리를 받도록 지원하고, 영유아기 예방접종부터 학교 건강검진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통합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함. · 제주의 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학교 현장으로 전격 확장하겠다고 밝힘. 학교별 전담 주치의를 지정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상시 건강 상담과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분절된 건강 데이터를 평생 지표로 연결하여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개선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p>- 위성곤 후보의 AI 대전환(AI)을 통한 제주 혁신경제 생태계 및 미래 엔진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산업으로의 대전환인 'AI'를 추진하여 제주를 첨단기술이 탄생하고 유통되는 대한민국 AI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함. 제주의 새로운 심장이 될 40MW급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1조 원 규모의 '도민주권 혁신펀드'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의 안착부터 스케일업까지 집중 투자함으로써 관광과 1차 산업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를 지식·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 · 인재가 모이는 혁신 생태계를 위해 '제주과학기술원(JIST)' 설립을 제안하고 AI 기반 스마트 물류 거점과 물류등가제 도입을 통해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힘. 사람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혁신 기업들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여는 실용 정책을 추진하며, 농업과 관광 등 기존 전략 산업에 AI를 결합하여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구조를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함. <p>- 고의숙 후보의 초개별화 맞춤 교육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주의적 관행을 깨고 교실의 숨소리가 담긴 현장 중심 혁신으로 제주 교육을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함. 무너진 학력을 회복하기 위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초개별화 맞춤 교육' 시대를 열고, AI 데이터 학습 시스템 구축과 1대 1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 강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힘'을 길러주겠다고 공약함. · 제주형 IB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국가 교육과정과 통합한 '한국형 IB(KB)'로 전

정치·행정	미래	<p>환하여 교육 격차와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힘. 급격한 AI 시대와 지역 소멸의 파도 속에서 읍면 지역 학교를 살려내고 미래 역량을 심어주는 한편, 인사와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과 기후·생태 전환 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 교육의 새로운 봄을 열겠다고 강조함.</p> <p>- 서귀포 보선 후보들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 경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범 예비후보는 바이오, 해양치유, 해양레저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서귀포만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무분별한 개발 대신 자연을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4·3의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 역사적 가치와 평화 인권 교육 확산을 통해 서귀포를 세계적 도시로 키우겠다고 강조함. · 고기철 예비후보는 서귀포의 구조적 침체 극복을 위해 제2공항 조기 추진과 항공특성화 대학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움. 공항, 산업, 교통, 복지를 연결하는 종합 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판을 바꾸고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마사회 이전 등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젊은 서귀포의 미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다짐함.
	구조	<p>- 문성유 후보의 빛의 경제 벨트 조성을 통한 야간 관광 및 소비 구조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이 낮 중심 구조에 머물러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성산 동일주도로를 '빛의 경제 벨트'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함. AI 스마트 디밍 가로등과 발광형 LED 차선을 도입하여 야간 주행 환경을 혁신하고, 주요 거점에 스마트 복합 쉼터를 조성하여 밤에도 푸드트럭과 로컬 마켓이 활성화되는 '머무는 경제 축'으로의 대전환을 꾀함. · 지나는 길을 머무는 길로 바꾸는 브랜딩을 통해 동부권을 안전과 소비가 살아나는 경제 동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함. 농경지 인근 조도를 자동으로 낮추는 정밀 조명 시스템으로 숙면권과 농작물을 보호하는 상생 행정을 실천하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구조 개선을 위한 '제주형 고용안정 패키지'와 '청년 임금보전제' 도입을 통해 제주 경제의 체질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노동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함. <p>- 이남근 후보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AI 스마트 플랫폼 및 농업 소득 구조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가장 큰 고충인 일손 부족과 상승하는 생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추진함. 택시 앱처럼 농가와 일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인력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인력 공급 구조를 만들고, 농작업 대행 조직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농민들이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버티는 한계 상황을 행정 주도의 스마트 시스템으로 극복하겠다고 강조함. · 여러 농가가 함께 방제하고 수확하는 공동 방제·수확 시스템과 친환경 농기계 보급 확대를 통해 농가의 생산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소득 안정 구조를 구축함. 농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한림읍 주요 교차로에서 30일째 거리 인사를 이어가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듣고 바로 해결하는 생활형 의원이 되어 지속

	<p style="text-align: center;">구조</p>	<p>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함.</p> <p>- 도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봉쇄 조항 유지에 따른 의회 정치 구조 변화 및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원 제도 일몰로 사라지는 정수를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의석이 8석에서 13석으로 늘어났으나, 정당 투표율 5% 이상인 경우에만 의석을 배정하는 '5% 봉쇄 조항'이 유지되어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 문제가 제기됨. 진보 정당과 시민 단체들은 거대 양당이 늘어난 의석을 독식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하며, 도민의 다양한 삶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과 진보 도의원의 원내 진출을 호소함. · 민주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하며 분야별 전문성과 여성 공천 규정을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전현직 당직자 중심의 공천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회 구조가 양당 중심으로 고착화될 것을 우려함. 소수 정당들은 위헌 논란이 있는 봉쇄 조항 타파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도의회를 바꾸고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의회 구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함.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행정</p>	<p style="text-align: center;">기반</p>	<p>- 제주도의 관광약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 기반 조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관광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관광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구축함. 시설 접근성 개선, 정보 제공 강화, 무장애 콘텐츠 개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숙소 임시 경사로 설치, 휠체어 유지 보수 및 무료 대여 확대, 실외 길 안내 서비스인 '휠내비길'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누구나 제약 없는 여행 기반을 마련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영상 제작과 사설 관광지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 지원을 병행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무장애 관광 생태계를 고도화함. '트래블 헬퍼' 양성과 관광업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인적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코스 개발과 '제주 행복여행' 지원을 통해 제주를 모두에게 열린 포용적 관광 도시로 성장시키는 튼튼한 토대를 다짐. <p>- 김덕홍 후보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수 인프라 및 지능형 물 관리 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천읍의 노후화된 농업용수 시설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저수지와 관개 시설 중심의 기존 공급 체계를 현대화하고 ICT 기반의 스마트 물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수자원 정책 추진을 통해 농민들이 가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함. · 친환경 물 관리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수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 소통을 통해 실천력 있는 정책을 발굴함. 농업용수의 스마트화는 지역 농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피력하며, 농가와 일손을 연결하는 인력 매칭 구조 개선과 함께 1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물 기반 조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가 실질 소득을 높여 농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

정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통한 역사 보존 및 평화 인권 교육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제주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총사업비 300억 원 규모의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본격 추진함. 기록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 형태로 건립될 예정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영구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역사·문화적 기반을 조성함. · 기록관 후보지로 4·3 평화공원 인근과 관덕정 일대가 거론되는 가운데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 4·3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거점으로 육성함. 김광수 교육감 후보 역시 유족 명예교사의 증언과 사료를 디지털화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하며, 과거의 아픔을 평화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글로벌 표준 교육 및 기록 인프라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힘.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항공, 콘텐츠, 상승, 관광객, 여행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할증료 폭등과 공급 좌석 감소에 따른 관광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4월 편도 7,700원에서 5월 발권분부터 34,100원으로 약 4.4배 폭등하며 주말 및 연휴 제주~김포 노선 왕복 항공료가 30만 원대에 육박하여 관광객의 비용 부담이
-------	----	--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관광</p>	<p>항공</p>	<p>심화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 간 합병에 따른 노선 재분배와 하계 운항 기간 조정으로 제주 기점 국내선 공급석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1,000석(약 3.7%) 감소하며 심각한 좌석난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도민들의 의료 및 학업을 위한 이동권 제약과 더불어 관광 수요 위축을 불러오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임. <p>- 제주항공의 차세대 항공기 도입 및 기단 현대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항공은 기단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령 20년 이상의 경년 항공기 2대를 매각하고 신규 B737-8 항공기를 구매 도입함으로써 여객기 평균 기령을 11.8년으로 낮추었으며, 올해 말까지 총 5대의 구매기를 추가 도입하여 기단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운항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함. · 차세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연료 효율 개선을 통해 지난해 누적 유류비를 전년 대비 약 16% 절감하였고, 리스 항공기 반납과 구매기 확대를 병행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원상복구 정비 비용 및 정비충당부채 부담을 완화하여 글로벌 저비용항공사로서의 원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 <p>- 대한항공의 글로벌 서비스 인증 및 지역사회 상생 공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운송 전문 컨설팅 기관인 스카이트랙스로부터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인천 및 LA 등 주요 공항 라운지의 대대적인 리뉴얼과 기내 서비스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550여 가지 항목에서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운영 탁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 양수안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한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 이송 업무를 수년간 전담하며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지원한 공로와 노사 간 원만한 소통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p>콘텐츠</p>	<p>- 제주 수출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실태와 실무 확장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수출기업의 약 55.6%가 주 3회 이상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챗GPT(32.5%)와 제미나이(25.0%)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문서 작성(22.9%)이나 홍보 콘텐츠 및 이미지 디자인 제작(20.2%)과 같은 마케팅 영역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출 서류 작성이나 업무 자동화 등 실질적인 수출 실무 영역에서의 AI 활용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시장 분석과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이력 관리 등을 연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방식으로의 기술 확장과 기업별 맞춤형 심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됨. <p>- 사계절 체류형 관광 브랜드 '카름스테이'의 집중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올댓트래블'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주의 사계절 매력을 담은 '더 제주 포시즌' 캠페인과 마을 단위 체류형 관광 브랜드인 '카름스테이' 홍보관을 운영하며 제주의 여행 패러다임을 기존의 단순 방문에서 머무르는 여행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적극 소개함. · 하계 시즌 대표 콘텐츠인 '제주 러닝위크'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마을별 고유한 로컬 콘텐츠와 체류형 여행 모델을 수도권 소비자 및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렸으며,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제주 지역 기반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과 향후 협업 가능성을 폭넓게 모색함.

경제·관광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담1동 '부러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용담1동은 옛 지명인 '부러리'의 역사적 자산과 지역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5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자 문화 콘텐츠 발굴 거점인 '문화마을 모델샵' 조성에 착수하였으며, 5월 착공 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및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총 263억 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문화예술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 노후 주택지를 개선하고 방문객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문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구도심의 경쟁력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함.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여파에 따른 제주 지역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제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를 기록하며 2023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17.6%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고 경유(28.6%)와 등유(28.4%) 및 휘발유(18.3%) 가격이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임. · 물가 상승은 유류비뿐만 아니라 국제항공료(15.9%)와 국제단체여행비 및 보험서비스료 등 서비스 요금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고등어(25.1%)와 쌀(14.6%) 등의 가격이 올라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가 2.9% 상승하는 등 장기화되는 중동 불안에 따른 체감 물가 부담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 -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은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매출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관광개발의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4월 한 달간 카지노와 호텔 부문에서 총 634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고, 특히 전년 대비 48.5% 급증한 카지노 순매출(488억 원)과 외국인 투숙객 비중 77.3% 달성 등 해외 관광객 유치 성과가 실질적인 경영 지표 상승으로 직결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함. · 2025년 제주 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8% 증가한 6,465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광진흥기금 납부액 역시 43.8% 늘어난 62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2030 젊은 층 이용객 비중이 51.3%까지 확대됨. - 유가 폭등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의 폭발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사태 지속으로 인해 제주 지역 전기차 보조금 신청 건수가 4월 말 기준 3,900여 대를 기록하며 상반기 목표 물량인 4,000대에 육박하였고, 이는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적 대안으로서 전기차 선호도가 높아지며 전년 동기 대비 신청 건수가 약 3배가량 폭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결과로 분석됨. · 제주도는 보조금 물량 소진에 대비하여 국비 53억 원 선사용 협의 및 추경을 통한 총 63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신청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 말경 모든 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 확대와 제주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보조금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임.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시장 위축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투입 및 체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및 항공 좌석 감소에 따른 관광 수요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 등 31억 5,000만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월 초부터 항공편으로 입도하여 2박 이상 체류하는 개별 관광객에게 지역화폐 '탐나는전'

경제·관광	관광객	<p>2만 원권을 공항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여 인상된 유류할증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보전해 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숙박과 렌터카 및 식음료 분야에서 최대 30%의 할인을 제공하고 조기 소진된 단체관광 및 수학여행 인센티브 예산 23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하반기 단체 수요를 연중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워케이션 참가자 대상 유류할증료 지원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함. <p>- 중국 거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공사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그룹과 업무협약 체결하고 90만 임직원 및 3,800만 프리미엄 회원을 대상으로 제주의 프리미엄 가치를 담은 특화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홍보하며, 징동의 '고품질' 신뢰 이미지를 활용하여 저가 단체 관광에서 탈피한 고부가 관광객 확보와 마이스(MICE) 시장 확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 · 중국 최대 교육 기업인 신동방그룹의 계열사와도 협업을 강화하여 자녀 동반 여행과 웰니스 및 문화관광 테마 상품을 기획하였고, 내년 초까지 신동방그룹 임직원 및 커뮤니티 회원 약 1,200명이 제주를 방문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프리미엄 제주 여행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제주의 관광 품격을 높이는 데 주력함. <p>- 카지노 고객층의 세대교체와 개별 여행 중심의 이용 패턴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제주 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은 전년 대비 37.8% 증가한 91만여 명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층 비중이 51.3%로 절반을 넘어서며 고객층이 급격히 젊어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형태가 단체 중심에서 개별 여행(FIT, 91.9%)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나타난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됨. · 개별 관광객들은 도내 복합리조트형 카지노를 단순한 도박 공간이 아닌 야간 관광의 거점으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제주도는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카지노 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여 나갈 방침임.
	여행	<p>- 원도심 야간 문화관광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굴림야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목 관아의 야간 개장 프로그램인 '굴림야행'은 2022년 시범 운영 이후 3년 만에 관람객이 약 8.5배(2022년 8,281명 → 2024년 7만 561명) 증가하는 경이적인 성장을 거두며 제주 원도심의 대표적인 야간 명소로 자리 잡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주 월·화를 제외한 저녁 시간에 무료 개방되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휴식 공간을 제공함. · 야간 경관을 배경으로 한 거리 공연 '굴림별곡'과 정기 공연 '굴림풍악'을 비롯하여 수문장 교대의식과 미디어아트 전시 등 풍성한 문화 예술 행사가 상시 운영되며,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제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행사와 시너지를 발휘하여 침체된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야간 관광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p>- 지역화폐 경품을 연계한 '삼다수 제주여행 페스티벌'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광동제약 및 제주은행이 협업하여 총 5억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삼다수 제주여행 페스티벌'을 5월과 7월 두 차례 진행하며, 온·오프라인 채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p>지역·사회</p>	<p>어린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에스키즈존' 지원 사업 및 활성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동 차별 해소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에스키즈존' 지정 및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함. 도내 음식점과 카페 64곳에 유아용 의자 및 식기 구매 비용 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6월 중 신규 공모를 통해 대상 업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임. · 현재 에스키즈존 사업이 일회성 지원금 지급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의 '서울키즈 오케이존' 지도 서비스와 같은 정보 제공 체계 도입이 필요함. 노키즈존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제주의 현실을 반영하여 상시 신청 체계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임. - 아동학대 의심 신고 급증 및 현장 대응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제주 지역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가 1,157건으로 전년 대비 48.5%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함. 이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신고 기준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나, 실제 아동학대 판정 비율은 19.3%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한 실정임. 정부 권고 기준은 신고 50건당 1명이지만 제주도는 전담 공무원 13명이 1인당 평균 89건을 감당하고 있으며,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 또한 2019년 이후 10여 명 수준에 머물러 대응력 강화가 시급함. -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 풍성한 문화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도 내 교육기관 및 문화 시설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짐.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어린이 행복축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행복 어린이대축제'를 통해 마술쇼, 샌드아트, 수십 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어린이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 · 제주도립미술관은 전관 무료 개방과 함께 일본 작가 나라 요시토모 캐릭터 채색 등 예술 교류 체험을 진행하였고, 서귀포시는 직장어린이집 플리마켓을 운영함. 또한 KCTV제주방송이 취약계층 아동 600명에게 6,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행보가 이어짐.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SK FC, 부천전 승리로 연패 탈출 및 반전 계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SK FC가 어린이날 열린 부천FC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연패의 늪에서 벗어남. 이번 승리는 부천과의 천적 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리그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며, 부상에서 복귀한 수비수들의 활약으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되찾은 점이 주효함. ·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은 팀이 K리그 최고의 축구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파이널 서드에서의 효율적인 결정력 향상을 향후 과제로 제시함. 이번 승리의 기세를 몰아 오는 9일 FC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여 시즌 첫 2연승에 도전함으로써 중상위권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힘. - 제60회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 상하수도 시설 안전 점검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제60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서귀포시가 관내 경기장 34곳에 대한 상하수도 시설물 사전 안전 점검을 완료함. 상수도 수압 적정 여부와 누수 상태, 공공 하수관 및 정화조 청결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선수단과 방문객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함. ·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7개소의 저수조 고장 및 하수관 막힘 등의 문제를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급수 및 준설 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함.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을 통해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뒷받침하고 지역 스포츠 축제의 질을 높이려는 행정적 노력이 지속됨. - 제주SK FC, 전북전 패배에 따른 득점력 부재 과제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SK FC가 전북 현대와의 1로빈 마지막 경기에서 0-2로 패하며 홈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김. 경기 주도권과 많은 슈팅 찬스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골키퍼의 선방과 문전에서의 마무리 부족으로 득점에 실패하였으며, 180분 동안 무득점에 그친 공격진의 결정력 문제가 주요 패인으로 분석됨. · 세르지우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내용면에서는 우수했으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통감하며, 공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팀 퍼포먼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리그 여정에서 승리에 가까워지기 위한 전술적 보완을 강조함.
지역·사회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청년 구직자를 위한 '2026 금융권 취업 박람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학교에서 지역 청년 구직자 327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 WIDE JOB FAIR 금융권 진로 취업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됨. 은행, 증권, 보험 등 국내외 26개 우수 금융 기업이 참여하여 취업 전략 수립을 돕고, 실질적인 채용 트렌드 정보와 직무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됨. · 특히 제주대 출신 선배들이 멘토로 나서 후배들에게 합격 노하우와 현장 업무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일대일 컨설팅과 특강을 통해 청년들이 금융권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설계하고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함. - 서귀포시 도서관, 청년 힐링 및 자아 성찰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가 청년들이 삶을 돌아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머물러도 괜찮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함. 삼매봉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와 고민을 반영한 북큐레이션 '나의 속도로 살아가기'를 진행하며 각자의 삶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도서 전시를 선보임. · 인기 유튜버 '뽀랭하맨'의 강연과 감각을 깨우는 힐링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청년들이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을 쌓고 삶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함. 도서관을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닌 청년들의 정서적 치유와 소통의 거점으로 변화시켜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함. - 한일 청년 세대, 제주 4·3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평화재단이 제일 제주인 후손과 한국 청년 50여 명이 참여한 '제2회 한일 청년 세대 4·3 원탁회의'와 '평화 기행'을 성료함. 청년들은 '4·3을 만난 오늘의 나'를 주제로 과거의 역사적 비극을 현재의 삶과 연결해 성찰하고, 평

지역·사회	청년	<p>화와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전승할지 논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동부 일대 유적지를 순례하며 역사적 현장을 직접 배우는 한편, 한일 양국 청년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활동 방향을 확정하여 연대의 기반을 다짐. 이는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청년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 연대를 통해 비극의 역사를 평화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행보로 평가됨.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전 소방서 '24시간 현장 지휘 체계' 전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지난 1일부터 도내 4개 모든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장이 주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3교대 체계를 전면 확대 구축함. 이는 소방서별 지휘 체계 편차를 해소하고 도내 전 지역에서 균형 있고 신속한 재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임. · 앞서 제주소방서가 1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재산 피해액이 전년 대비 47.3% 감소하고 화재 골든타임 도착률 목표를 달성하는 등 효과가 입증됨.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양상에 맞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휘관이 초기부터 현장을 전담 지휘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인명 및 재산 보호 시스템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됨. - 봄철 미세먼지 유발 환경 사범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6일부터 2주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유발 환경 사범 특별 점검'에 나섬.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봄철을 맞아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의 불법 판금·도색 행위와 대형 사업장의 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 등을 집중 단속하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법 행위를 엄단할 계획임. · 특히 온라인 홍보를 통한 은밀한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모니터링 과 탐문 수사를 병행하고, 위반 시 형사 입건 및 행정 처분을 병행하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힘. 제주의 청정한 대기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 건강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수사 실효성을 높임. - 6·3 지방 선거 후보자 대상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9회 지방 선거에 출마한 8개 정당 후보들에게 탄소 중립과 기후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함. 2035년 탄소 중립 달성,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 재검토, 대중교통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공약의 실천 여부와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임. · 올해 벚꽃 동시 개화와 이상 고온 등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차기 도정의 임기가 2050 탄소 중립의 성패를 가를 핵심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강조함. 질의 결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후 위기 대응의 책임자를 검증하고, 지역 정치권이 환경 의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강력한 정책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세계 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및 노동 기본권 보장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주본부가 각각 대규모 기념 대회를 열고 노동자의 주체성 회복과 기본권 쟁취를 선언함. 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날' 대신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되찾고 첫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p>지역·사회</p>	<p>노동자</p>	<p>해로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아 진행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참가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함. 또한 최근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하고 쉴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지속할 것을 결의함. <p>- 지역 정치권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제주 지역 정당과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노동절 논평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민생 공약을 잇따라 내놓음. 정의당은 주 4일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을, 진보당은 원청 책임 강화와 과로·심야 노동 근절 대책을 약속하며 노동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함. · 무소속 예비후보는 생활임금 체계 현실화와 노동-생활 연계 지원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 현장 방문을 통해 노동 소득 확대와 정책 참여 구조 구축을 강조함. 이는 노동 정책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지역 민생 경제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노동 가치가 제대로 보상받는 구조적 전환을 꾀하려는 선거 국면의 흐름을 반영함. <p>- 레미콘 운송 노동자 파업 및 운반비 인상 협상 난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도내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됨.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조 제주지부와 제조사 간의 8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의 17% 인상 요구와 사측의 2~3% 제시안이 팽팽히 맞서며 한 달 넘게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임. · 레미콘은 건설 공정의 핵심 자재로, 지입제 구조상 운송이 중단되면 공급이 전면 차단되어 공기 지연 등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함. 특히 섬 지역 특성상 대체 공급처 확보가 어려워 파업 장기화 시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우려됨에 따라, 노사 양측의 극적인 합의와 상생을 위한 중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